

‘함평 어벤져스’ 앞세운 KIA, 상위권 도약 분수령

7월 6연전 SSG·롯데 대결

전반기 막판 ‘3~5위’ 혈투
6월 상승세 이어갈지 관전
“대체인력 주전급 활약 승부”



프로야구 전반기 종료까지 단 9경기를 남겨둔 KIA 타이거즈가 6월의 뜨거운 상승세를

앞세워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 이번 주 6연전은 4위 KIA가 5위 SSG 랜더스, 3위 롯데 자이언츠와의 ‘3~5위’ 간 격돌이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선발 로테이션 파격 운영에도 KIA는 2군에서 올라온 ‘함평 어벤져스’들의 주전급 활약에 승부를 거는 모습이다.

KIA는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진 키움

2025 KBO리그 순위						(30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한화	78	45	32	1	0.584	0.0
2	LG	79	44	33	2	0.571	1.0
3	롯데	80	41	35	3	0.539	2.0
4	KIA	79	41	35	3	0.539	3.5
5	SSG	78	39	36	3	0.520	5.0
6	KT	80	40	37	3	0.519	5.0
7	삼성	79	39	39	1	0.500	6.5
8	NC	76	35	37	4	0.486	7.5
9	두산	79	31	45	3	0.408	13.5
10	키움	82	25	54	3	0.316	21.0

과의 3연전에서 1승 1무 1패, 이어진 주말 LG전에서는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6월 한달간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일 기준 27승 28패 1무(승률 0.491)로 7위에 머물렀던 KIA는 약 한 달 만에 41승 3무 35패(승률 0.539)로

단독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1위 팀과의 격차도 7경기에서 3.5경기로 좁혔다.

무엇보다 6월 성적은 리그 최고다. 15승 2무 7패(승률 0.682)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전반기 마지막 9경기를 잘 마무리할 경우 선두권 싸움에도 본격 가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실 시즌 초 KIA의 6월은 ‘버티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주전 10명 이상이 이탈한 상황에서 6월 중 복귀 예정인 선수는 외국인 타자 위즈덤과 외야수 이창진 정도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위까지 떨어졌던 KIA는 ‘함평 타이거즈’의 반란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오선우는 2019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1군에서 200타석 이상을 소화하며 타율 0.297을 기록, 중심타선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수비 전용’으로 평가받던 김호령

도 6월 한 달간 타율 0.271로 공수 겸장을 입증했고, 고종욱은 타율 0.375로 결정적 순간마다 안타를 생산했다. 박민도 역시 안정된 수비로 공백을 메웠다.

투수진도 예상 밖 활약이 이어졌다. 성영탁은 올해 1군 데뷔 이후 13경기 15.1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 1.17을 기록했고, 데뷔 후 17.1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는 구단 신인 최다 무실점 이닝 기록을 새로 썼다.

KIA는 1일부터 SSG와, 4일부터 롯데와 맞붙는다. SSG는 39승 3무 36패(승률 0.520)로 KIA와 1.5경기 차 5위다. 최근 10경기 기준 타율 0.294, 평균자책점 2.93으로 KIA(타율 0.285, 평균자책점 3.72)보다 전체적으로 앞서지만, 양 팀이 마지막으로 맞붙은 지난달 21~22일 경기에서는 KIA가 1승 1무로 앞섰다.

롯데는 예년과 달리 여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팀 타율 1위(0.286)의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수를 쌓고 있지만, 황성빈·나승엽 등 주요 타자들의 부상

으로 변수는 존재한다. 이범호 감독은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략 수정을 단행했다. 주전의 체력 안배와 선발진 보호 차원에서 제임스 네일, 아담 올러를 차례로 1군에서 말소했다. 후반기 주전 대거 복귀를 고려해 체력을 비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전 투입 대비 풀업 자원의 경기력이 전반기 9경기 동안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다.

KIA가 남은 경기에서 현재 순위를 지켜내는 것은 물론, 3위 롯데를 넘고 한화·LG의 양강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월 반등을 이끈 ‘함평 어벤져스’의 기세가 후반기에도 이어진다면, KIA의 진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완도 출신’ 이소미, LPGA ‘2인 1조’ 다우 챔피언십 우승



이소미(오른쪽)가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2025 다우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5번 홀에서 이퍼팅 성공 후 임진희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임진희와 조 이뤘 연장 우승
韓 첫 ‘2인-1조 대회’ 정상

‘완도 출신’ 프로골퍼 이소미가 LPGA 투어 유일의 2인 1조 경기인 ‘다우 챔피언십’에서 임진희와 극적인 우승을 합작했다. 한국 선수로는 이 대회 첫 정상 등극이다.

이소미-임진희 조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합작하며 62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한 이들은 미국의 텍스 톰프슨-메건 강 조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고, 18번 홀

(파3)에서 이소미의 티샷과 임진희의 2.5m 버디 퍼트가 연달아 적중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총 80만5381달러(약 10억9000만원)로, 임진희와 이소미는 이를 절반씩 나눠 갖는다.

두 선수 모두 LPGA 투어 2년 차로, 이번이 미국 무대 첫 우승이다. 국내에서는 임진희가 KLPGA 6승, 이소미는 5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경기는 각자의 공으로 플레이하는 포볼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연장전은 한 공을 번갈아 치는 포섬 방식으로 진행됐다. 144야드 18번 홀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임진희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고, 강의 퍼트는 홀 왼쪽을 살짝 비켜

나가며 승부가 갈렸다.

이소미는 우승 후 방송 인터뷰에서 “작년에 힘든 루키 시즌을 보냈는데 이번 우승이 정말 행복하고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진희는 “혼자였다면 우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내년에 다시 참가하겠다”고 웃었다.

6년 만에 투어 통산 12승에 도전했던 톰프슨은 연장전 통산 6전 전패의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교포 오스틴 김과 호흡을 맞춘 ‘영암 출신’ 김세영은 공동 6위(16언더파), 전지원-이미향 조는 공동 10위(15언더파), 박성현-윤이나 조는 공동 18위(13언더파)에 머물렀다. 최동환 기자

이강인 vs 김민재, 6일 ‘코리언 더비’

2025 FIFA 클럽월드컵 8강
PSG·뮌헨, 나란히 4강 도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왼쪽)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2025 FIFA 클럽월드컵 8강에서 맞붙는다.

파리 생제르맹(PSG)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애들랜타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의 16강전에서 4-0 완승을 거뒀다.

PSG는 이날 경기에서 전반에만 4골을 터뜨리며 인터 마이애미를 압도했다. 리오넬 메시가 풀타임 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 없이 팀의 완패를 지켜봤다. 이강인은 후반 25분 교체 투입돼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같은 날 김민재가 결장한 뮌헨은 브라질의 플라멩구를 4-2로 제압하며 8강에 올랐다.

뮌헨은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플라멩구를 따돌렸다. 김민재는 아킬레스 부상 여파로 4경기 연속 결장했다. 뮌헨은 경기 초반 자책골과 케인의 중거리 슈트로 기선을 제압했고, 후반 28분 케인의 썬기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두 팀은 한국시간으로 7월 6일 오전 1시 미국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스타디움에서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클럽월드컵 8강에서 유럽 챔피언인 PSG와 뮌헨이 맞붙게 되면서, ‘이강인 vs 김민재’의 코리언 더비 성사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양궁 여제’ 안산 “5·18민주광장에서 경기 큰 의미”

어제 국가대표 이벤트 매치 참여
“세계선수권 잘 준비해 보답할 것”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만큼 실수 없이 없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으로서 한국 양궁 역사상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한 안산(광주은행·사진)이 30일 오는 9월 열리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우수실업팀 및 해외우수선수 초청 국가대표 이벤트 매치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여 양궁대회에서 우승한 남·녀·일반부 우승팀인 울산 남구청, 인천시청과 남녀 리커브 태극전사(김우진·이우석·김제덕·임시현·안산·강채영)가 맞붙는 특별 행사다.

이날 경기에서 남자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이우석·김제덕은 황석민·문균호·김민범(울산 남구청)과 리커브 남자단체전에서 1세트 57-50를 가져온 뒤 2세트 57-57로 1점씩 나눠 가졌고 3세트에서 59-58로 승리를 장식했다.

이날 여자 국가대표인 안산·강채영·임시현은 김서영·장민희·전현영(인천시청)과 리커브 여자단체전에서 1세트를



53-53으로 비긴 뒤 2세트와 3세트를 각각 54-55, 57-59로 내주며 패배했다.

다만 이우석·안산이 함께한 혼성단체전에서는 김우진·강채영을 상대로 슈트오프까지 가는 경합 끝에 슈트오프에서도 20-20을 기록했고 엑스텐을 기록한 이우석·안산이 승리를 챙겼다.

리커브 여자 개인전은 세트 스코어 6-4로 임시현이 강채영을 누르며 승리했고,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우진이 7-3으로 김제덕을 꺾었다.

이날 경기를 마친 안산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오늘 첫 단체전 때는 바람에 익숙하지 않고 날씨도 많이 더워서 좀 고생했는데, 쏘다보니 바람에 적응했고 조준



점도 파악해서 혼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바람과 기후에 적응하며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 바람에 적응해서 세계선수권 대회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무대가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상징의 공간인 5·18민주광장인만큼 그에게도 의미가 깊다. 어렸을 때부터 민주광장을 많이 지나다녔던 곳에서 화살을 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있고 그만큼 더 노력하겠다는 것이 안산의 설명이다.

안산은 “국가대표가 서로가 더 편해지고 더 믿음이 가며 지난 경기들 보다 더 좋은 팀워크를 갖고 있어 팀워크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개개인적으로 성장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세계선수권대회를 잘 준비해서 별 탈 없이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민현기 기자·사진=김우진 PD